

## 문화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 18일 ~ 11월 4일)에 선보이게 될 작품이 12일 첫 설치되는 등 개막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전시장 안내를 도울 통역도우미, 운영요원, 지원봉사자들도 공식 활동에 들어가는 등 개막을 40여 일 앞두고 관람객을 맞을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12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 제2전시실에서 참여 작가들이 제3회 광주비엔날레에 선보일 작품을 설치하고 있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 디자인의 대향연 카운트 다운

개막 40여일 앞두고 中작가들 작품 첫 설치

지원봉사자 발대식... 탤런트 장서희 홍보대사

12일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주제전 '집' 섹션의 '클루 II' 전 참여 작품인 중국 건축회사 FCJZ(非建築)의 '대나무 팬던(Bamboo Lantern)'을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에 설치했다.

가로, 세로 50cm의 반투명 대나무 페인트를 격자 무늬로 불여 2m 크기의 사각형 공간을 만들고, 공간 안에 휴식을 위한 실린더형 내부공간을 설치한 작품이다. 지난 1993년 베이징에 문을 연 FCJZ는 20명의 건축가로 구성돼 있고, 공공건축, 조경디자인 등 실험적인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클루 II'는 조선시대 대표 정원인 담당 소재원

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작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휴식 공간을 표현하는 전시이다. 독일의 유명 자동차 디자이너이자 기아자동차 디자인총괄 부사

장인 피터 슈라이어, 소설가 이외수, 시인 황지우, 작곡가 박범훈씨 등 다양한 분야 예술가들의 작품이 '클루 II' 전에 전시된다.

또 이날 재단 회의실에서는 통역도우미 10명, 운영요원 10명, 지원봉사자 100명 등 총 120명이 디자인비엔날레 행사 운영자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발대식에는 이번 디자인비엔날레 명예홍보대사로 선정된 인기 탤런트 장서희씨(인터뷰 16면)도 참석해 위촉패를 받고, 국내외 홍보를 다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서울시 양천구 지원봉사자 250명이 이번 디자인비엔날레 '살립' 섹션의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특별전에

전시될 손뜨개 수세미 2만개를 만드는 봉사를 시작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주부환경봉사단 등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재단 측에서 텁실, 대바늘, 코바늘 등의 물품을 후원했고, 전시 수익금과 기부금은 모두 네팔의 어린이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이 밖에도 디자인비엔날레는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전시와 산업의 연계, 과급효과 등을 진단하는 '국제 디자인 포럼'도 개막에 맞춰 오는 9월 18~19일 이틀간 재단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기타야마 히토미(일본 NIKI 그룹 대표), 정국현(삼성전자 부사장), 함스켈튼(네덜란드 디자이너), 마리아 크리스티나 디데로(이탈리아 독립큐레이터), 에라가 윙차릭(태국 국립 코디네이터), 클락 러셀린(미국 하와이대 건축대학장), 마시모 피티스(이탈리아 타이포그래피)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미리보는 개막식

오는 9월 18일 열리는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은 참여작가와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축제의 마감으로 펼쳐진다.

하늘에서 개막식 무대가 내려오고, 화려한 비치 파라솔이 비엔날레 전시관 앞 테마광장에 설치되는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최근 개막식 총 연출자로 극단 미주 기획자인 전용성씨를 선정하고,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개막식 연출기획안을 발표했다. 전시는 양주세계민속축제와 한국연극 100주년 행사, 성남 국제무용제 등에서 기획을 맡은 문화 행사 연출 전문가이다.

이번 개막식의 특징은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 의

식행사에 그쳤던 딱딱한 개막행사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기획안에 따르면 개막식 무대를 미리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증기에 매달려 있던 무대가 하늘에서 서서히 내려오는 환상적인 방식이다. 이 무대에서는 이번 디자인비엔날레 '주' 섹션에 작가로 참여하는 황지우 시인과 연극 연출가 손진책씨 등이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은병수 예술총감독은 "내빈 소개와 행사 위주에서 벗어나 광장에서 관람객과 작가들이 마음껏 놀고, 즐길 수 있는 '문화 난장' 형태로 개막식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참여작가·관객 어울림 무대로 꾸며

식행사에 그쳤던 딱딱한 개막행사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기획안에 따르면 개막식 무대를 미리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증기에 매달려 있던 무대가 하늘에서 서서히 내려오는 환상적인 방식이다. 이 무대에서는 이번 디자인비엔날레 '주' 섹션에 작가로 참여하는 황지우 시인과 연극 연출가 손진책씨 등이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은병수 예술총감독은 "내빈 소개와 행사 위주에서 벗어나 광장에서 관람객과 작가들이 마음껏 놀고, 즐길 수 있는 '문화 난장' 형태로 개막식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라솔을 상인들이 쓰는 현 파라솔과 교환해 온 것들이다. 파라솔마다 가져온 장소와 사업 등도 적어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국의 전통색인 오방색으로 만들어진 과자와 떡, 국수 등을 관람객에게 나눠주고, 테마광장에 마련된 '빛나는 노래방'에서는 찬성작자들이 어우러져 신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은병수 예술총감독은 "내빈 소개와 행사 위주에서 벗어나 광장에서 관람객과 작가들이 마음껏 놀고, 즐길 수 있는 '문화 난장' 형태로 개막식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하미 시네마

전대후문 하미스포츠박스 ☎ 267-7777

1관 업(전체)/차우(18세)

2관 불신지옥(15세)

3관 국가대표(12세)

4관 국가대표(12세)

5관 퍼블릭에너지(15세)

6관 해리포터와 혼혈왕자(전체)/아이스에이지-3(전체)

7관 해운대(12세)

8관 4교시 추리영역(15세)

9관 지.아이.조(15세)

10관 해운대(12세)

\* 500여 원은 주차장 3시간(200원)\* 365 매일 심야

\* 0통 불신사 & OK 카페에서 키드 할인 혜택

\* 하이 수영장 269-5757

\* 하이 폴리장 251-5000

\* 하이 물파크 262-0925

\* 하이 물구장 251-5000

##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지.아이.조(15세)/10억(15세)

2관 불신지옥(15세)

3관 해운대(12세)

4관 아이스에이지-3(전체)/원 럭 몽트리올(전체)

5관 퍼블릭에너지(15세)

6관 국가대표(12세)/해운대(12세)

7관 국가대표(12세)

\* 매일 심야 상영합니다 \*

\* 무로주차 3시간

\* 아름다운사람 할인혜택

\* 씨너스 녹화 사무실(오전 5시 ~ 오후 1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 제일 시네마

충장로 3가 V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해운대(12세)

2관

불신지옥(15세)

3관

퍼블릭에너지(15세)

4관

국가대표(12세)

5관

지.아이.조(15세)

6관

아이스에이지-3(전체)/10억(15세)

\* 드라마존 3시간

\* 아름다운사람 할인혜택

\*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정

ARS 전화예매

227-1960

**영화안내 HAPPY TIME**  
인기영화 즐거운시간 보내세요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앞)

**하미 시네마**  
전대후문 하미스포츠박스 ☎ 267-7777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제일 시네마**  
충장로 3가 VARS 전화예매 227-1960

**Megabox**  
구.현대백화점 3층 ☎ 1544-0600

**Joy Cinema**  
한동시민영화관 ☎ 1588-7941

**Hami Cinema**  
고래시장 고래김동 ☎ 1588-8120

**Cinema Paradiso**  
새로은 가로 ☎ www.primuscinema.com/www.jelcinema.co.kr

**CJ CGV**  
구.현대백화점 3층 ☎ 1544-0770

백설공주... 뾰로로... 벌거벗은 임금

## 뮤지컬로 아이들 만난다

시, 오후 2시·4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평소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주인공 뾰로로와 사고뭉치 공룡 크롱, 발명가 여우 에디, 귀여운 비버 루피 등 다양한 캐릭터가 출연하는 '뾰로로와 비밀의 방'은 얼음나라에서 열리는 운동회 등 뾰로로가 친구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퍼즐 맞추기, 공 전달하기 등 관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었다.

티켓 가격 3만 5천원, 문의 062-372-0300

극단 코스모스는 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을 무대에 올린다.

29일(오후1시·3시·4시490분)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서울교육극단 '유리가면'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작품으로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에서 열리는 운동회 등 뾰로로가 친구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퍼즐 맞추기, 공 전달하기 등 관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서울극단 해미소가 선보이는 '벌거벗은 임금님'은 오는 29일(낮 12시, 오후 2시·4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아이들에게 친숙한 동화를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가족 뮤지컬로 만든 작품으로 박찬구·함유은·고도일씨 등이 출연한다. 티켓 가격 1만 2천원, 문의 070-7019-719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